



이 천 용
「숲과 문화」 운영회원

동요 속의 숲과 자연 (3)

고향 동경

지금과는 달리 시골은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하늘이요, 산이요, 나무였던 자연이 함께 숨쉬던 곳이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추억이 서린 고향 뒷동산에 상당한 미련이 남아 있고 진한 향수가 배어난다. 들국화 사이로 풀피리를 불며 고향 산길을 걸어 가면 꽃바람이 일고 서정이 가득하다. 나의 살던 고향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퍼서 마치 울긋불긋한 꽃대궐같다는 '고향의 봄'은 누구나 가고 싶은 이상향이다.

“내 고향 가고 싶다. 그리운 언덕, 동무들과 함께 올라 뛰놀던 언덕, 오늘도 그 동무들 언덕에 올라 메아리 부르겠지, 나를 찾겠지. 내 고향 언제 가나, 그리운 언덕, 옛동무들 보고 싶다. 뛰놀던 언덕, 오늘도 흰 구름은 산을 넘는데, 메아리 불러 본다. 나만 혼자서” <강소천謠 ‘그리운 언덕’>

“지금은 그리워라 내가 살던 곳 그곳의 친구들도 많이 자라고 쫑쫑 산쟁들도 날고 있겠지 거기가 내 고향 산마을이다”

<임교순謠 ‘그리운 언덕’>

“흰 눈이 자욱하게 내리던 그 날 아버지와 뒷산길 외가 가는 날 아름답리 나무뒤에 뭐가 나올까 아버지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심후섭謠 ‘외갓길’>

“뚝뚝뚝 뚝뚝새 눈에서 울고, 삐뚝뚝뚝 삐뚝새 숲에서 울고, 우리 오빠 말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 기럭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뚝귀뚝 귀뚜라미 숲에서 울제, 서울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무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최순애謠 ‘오빠생각’>

자연친화

산, 나무, 새, 하늘 등 숲의 생

물과 무생물이 함께 펼치는 광경이 동요에 자주 등장한다. 우리 제일의 명산도 바위봉우리만 있다면 더 이상 평산이 아니다. 숲이 있어야 물도 흐르고 철따라 옷을 갈아 입는다. 숲이 있어야 가족과 함께 걸어도 기쁘고 서로 마음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숲은 그만큼 자연 친화력이 강하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철따라 고운 산, 갈아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금강산 보고싶다. 다시 또 한번, 맑은 물 굽이쳐 폭포이루고 각가지 옛이야기 가득 지닌 산. 이름도 찬란하여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강소천謠 ‘금강산’>

“다람쥐 지나가는 오솔길 따라 휘파람 불면서 산으로 가자 불러주는 고운 목소리 구비구비 숨바꼭질 산모퉁 돌면 하얗게 손흔드는 갈대숲 언덕의 노래 타는 놀

저녁연기가 그림같은 산골길”

〈이희규謠 ‘산골길 바닷길’〉

“파란 하늘에 하얀 꽃 구름 뭉
게 뭉게 피어 나면 샘물이 졸졸졸
흐르는 숲속엔 산새들이 노래를
한다. 쪼록 쪼록 쪼록 쪼록 또롱
또롱 또롱 즐거운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눈부신 햇살이 풀잎에 비
치면 반짝반짝 오색구슬 쪼로록
쪼로록 또로롱 또로롱 숲속으로
메아리진다.

술술 바람이 나뭇잎 스치면 팔
랑팔랑 춤을 추고 향긋한 꽃향기
풍기는 숲속엔 예쁜 새들 노래를
한다. 뽕뽕뽕뽕뽕뽕 뽕리뽕
리뽕리뽕리 즐거운 노래 아름다
게 들린다.

따가운 햇살이 숲속을 비쳐도
산들 바람 시원하고 뺨어롱뺨어
롱 뺨리리비리리 숲속으로
메아리진다.”

〈주기환謠 ‘숲속의 노래’〉

“피리리 폴피리 소리 살며시 들
려온다. 언젠가 언니와 함께 거닐
던 이 오솔길, 피리리리 피리 불
며 뛰놀던 이 오솔길 피리 소리
따라가자. 끝없는 이 오솔길, 피
리리 폴피리 소리 정답게 들려온
다. 산새도 날아와 놀던 고요한
이 오솔길, 피리리리 피리 불며
숲속의 이 오솔길, 피리 소리 따
라가자 끝없는 이 오솔길.”

〈정근謠 ‘오솔길’〉

“시냇물 건너 숲속 오솔길 따라
서 발걸음 가벼웁게 소풍 가는 길
엄마 아빠 손잡고 랄라 랄라
노래부르면 저 산 너머 흰구름

어서 오라 손짓합니다.

높은 산위에 올라 솔바람 마시
면 산허리 구름들 등실 떠가네.
아빠따라 야야호 메아리도 야
호

야야호 엄마 따라 야야호

산새들도 따라합니다.”

〈이한수謠 ‘즐거운 소풍길’〉

“푸른 푸른 푸른 산은 아름답구
나 푸른 산 허리에는 구름도 많다
토끼구름 나비구름 짝을 지어서
달랑달랑 구름마차 끌고 갑니다”

〈박경중謠 ‘푸르다’〉

“정답게 손목을 꼭 잡고 휘파람
불며 저 산으로 놀러가자 산새들
이 지저귀며 반겨주는 푸른 산
으로 놀러가자. 랄라랄라라 예쁜
가방 둘러메고 랄라랄라라.

꽃노래를 부르면서 친구의 정
다운 얼굴을 마주보고 생긋이 미
소지으며,

산들산들 산바람을 맞으면서
푸른 산으로 놀러가자.

동그란 모자를 머리에 곱게 쓰
고 저 산으로 놀러가자 다람쥐가
넘나들며 반겨주는 푸른 산으로
놀러가자 야호야호 야

기슴을 활짝 펴고 야호 야야호
힘차게 부르면서 아빠와 엄마의
손목을 함께 잡고 행복의 정을 나
누며,

언제든지 손짓하며 올라가는
푸른 산으로 놀러가자”

〈양인석謠 ‘푸른 산으로 놀러
가자’〉

“뒷산에 올라가 꽃송이를 땀어
요. 빨간 꽃, 노란 꽃, 꽃송이를

땀어요. 송이송이 엮어서 꽃목걸
이 만들어 살며시 목에다 걸어 봤
어요. 뒷산에 올라가 꽃송이를 땀
어요. 풀잎사귀 나무열매 함께 땀
어요. 하나씩 엮어서 꽃왕관 만들
어 살며시 머리에 써봤어요”

〈이슬기謠 ‘뒷산에 올라’〉

“애들아, 나오너라, 달따러 가
자. 장대들고 망태메고 뒷동산으
로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윤석중謠 ‘달따러 가자’〉

감정이입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마치 자식을 키우 듯 하고, 친구
처럼 의인화하기도 한다. 숲은 어
머니의 품과 같이 포근하다. 인간
이 갖고 있는 감정을 나무를 빌어
표현한다.

“나무야, 나무야. 서서지는 나
무야. 나무야, 나무야. 다리 아프
지. 나무야, 나무야 누워서 자거
라”

〈강소천謠 ‘나무야’〉

“어른들은 날 보고 떠든다지만
꽃들이 깔깔대고 웃는 트락에
풀벌레는 저렇게 속삭거리고
새들의 노래소리 장단 맞추어
나뭇잎도 짹짹 손뼉치는데
나혼자만 어떻게 조용할까요”
〈김중상謠 ‘나혼자만 어떻게’〉

“마음이 이슬처럼 맑은 아이는
꽃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이슬처럼 맑은 아이는 꽃
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요.

진달래야, 어제 밤 누가 왔니.
길잃은 호랑나비 찾아왔길래,
밤새워 별을 보고 속삭였다.
마음이 이슬처럼 맑은 아이는
꽃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
요.

마음이 이슬처럼 맑은 아이는
숲속의 재롱들을 엿볼 수 있어
요.

마음이 이슬처럼 맑은 아이는
숲속의 재롱들을 엿볼 수 있어
요.

다람쥐야 도토리 하나 주겠니.
낮에는 울보라고 놀려대더니,
요렇게 맛있는 걸 누가 줄까봐.
요렇게 달콤한 걸 누가 줄까봐.
마음이 이슬처럼 맑은 아이는
숲속의 재롱들을 엿볼 수 있어
요”

〈김교현謠 ‘마음이 이슬처럼’〉
“우산을 들고 비오는 꼬불길을
걸어가 보자.

꼬불길을 똑똑똑 따라오는 방
울, 빗방울 따라오며 얘기하는
빗방울 소리 따라오는 나무에
도 방울 방울 빗방울, 나무도 나
를 보고 얘기하잔다”

〈신현득謠 ‘비오는 오솔길’〉
“솔바람이 좋아서 솔바람 처럼
향기로운 산길이 되었답니다.

산골물이 좋아서 산골물처럼
구불구불 산길이 되었답니다.

한구비 돌고나서 물소리 듣고,
또 한구비 돌고나서 새소리 듣
고, 온종일 산허리 감고 돌다가
산자락 이불삼아 잠이드는 길”
〈문삼석謠 ‘산길’〉

“산새 등을 타고 숲속에 갔더니
내게 산처럼 살아가래요. 그윽한
향기 뿌리고 방긋이 웃음 띠우며
무겁게 앉아 멀리 바라보고 푸르
게 살아가래요.”

〈정용원謠 ‘이렇게 살아가래
요’〉

민족의 기상 · 희망

나무에 비유하여 어린이의 성
장과 기상을 희망한 동요가 상당
수 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이
요, 희망이다. 특히 일제에 억눌
렸던 시대에는 기성세대에서 이
루지 못한 것을 성취해 달라는 간
절한 소망을 담은 내용이 많음은
당연하다. 불리보면 저절로 힘이
솟고 힘차게 날 것만 같다.

“푸른 빛이 들어가네. 우리 강
산, 새 강산. 커가네, 자라네. 새
나라의 어린이 내일의 일꾼 새나
라의 새주인”이라는 가사만 봐도
어린이에 대한 기대가 어떤지 알
수 있다.

“산산산 산에는 나무들이 자라
고, 들들들 들에서 곡식들이 자란
다. 조롱조롱 가지에 과일들이 자
란다. 줄줄줄 비맞고 잘도 자란
다.

모두모두 자란다, 시시때때 자
란다, 모두모두 자란다, 우리나라
가 자란다.”

〈김대영謠 ‘모두모두 자란다’〉
“나무들이 손을 펴 여름내 모은
빛은 아마도 탐스런 열매속에 들
었을거야 밤송이같은 내 머리속

에도 빛이 쌓이면 서투른 생각들
을 알밤처럼 익게 할거야 책을 읽
으면 밝아오는 마음 용솟음치는
희망 또 다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힌다.”

〈위영남謠 ‘빛이 쌓이면’〉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랗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아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어효선謠 ‘파란 마음 하얀 마
음’〉

“하늘 향해 두팔 벌린 나무들
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
같이, 하늘 향해 두팔 벌린 나무
들 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
들같이, 너도 나도 씩씩하게 어서
자라서 새나라의 기둥되자.

우리 어린이”
〈강소천謠 ‘어린이 노래’〉
“산위에 오르면 내 생각이 산처
럼 커진다. 바다에 나가면 내 가
슴이 바다처럼 열린다. 파아란 산
위에서, 바다에서 내가 자란다.
내 생각이 자란다.”

〈이상현謠 ‘여름’〉
“우리들은 일학년 어서어서 자
라자 학교마당 나무들이 같이 자
라자”

〈윤석중謠 ‘일학년’〉
“파랗게 파랗게 나무가 자라듯
우리들은 날마다 쑥쑥 자라요. 발
돋음을 할 때마다, 한뼘씩 한뼘씩
우리들은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
라요”

〈선용謠 ‘우리는 나무처럼’〉

“내를 건너 숲으로 가자. 고개 넘어 마을로 가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같 나의 길은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산새가 울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희망의 길.”

〈윤동주謠 ‘새로운 길’〉

숲과 물, 바람

숲은 나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풀, 동물, 물, 바람, 소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숲속의 물이 깨끗하고 바람이 시원한 이유는 숲이 이들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가 그윽한 길,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숲속을 걸어요. 맑은 바람 솔바람 이는 숲속을 걸어요. 도랑물이 넘나드는 길, 웃음 띤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유종슬謠 ‘숲속을 걸어요’〉

“깊은 산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비비고 일어나 세수하고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맑고 맑은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달밤에 노루가 숯바꼭질 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윤석중謠 ‘웅달샘’〉

“너와 나 웅달샘 한모금 마시면

하늘은 푸른 하늘 가슴이 뻥다”

〈석용원謠 ‘목장의 노래’〉

“산마루에서 외쳐보자.

야호 야호 야호호 새소리 물소리가 골짜기에 차고,

바람에 푸른 잎이 깃발이 되네.”

〈신현득謠 ‘산마루에서’〉

“산에 부는 바람은 장난꾸러기 파랑 파랑 잎새로 날아다니며 빨간 꽃잎을 그려놓아요.”

〈정근謠 ‘바람’〉

“북쪽으로 가면 백두산 남쪽으로 가면 한라산 우거진 수풀 바람막아 주는 정다운 산, 우리 산”

〈윤석중謠 ‘우리 산 우리 강’〉

“산새들이 노래하는 숲속 산길은 이리저리 꼬불꼬불 좁은 오솔길 가쁜 숨 몰아쉬고 땀 씻으며 손에 손을 마주잡은 무지개 꽃길, 야호야호야호 너도 나도 가슴을 펴고 라라라 야호 야야호.

우리 모두 노래부르자.

사르르르 사르르르 산새소리에 라라라라 대답하고 라라라 노래하며 찾는 산길은 우리들의 꿈길,

다람쥐가 뛰어노는 숲속 산길은 동무들과 즐겨찾는 정다운 산길 산바람이 사랑사랑 땀 씻으며 반갑게 맞아주는 희망의 동산,

야호야호야호 너도 나도 가슴을 펴고 라라라 야호 야야호 우리 모두 노래부르자.

비리리리 비리리리 산새소리에 마주보고 비리리리 라라라 마음열고 찾는 산길은

너와 나의 꿈길”

〈윤종철謠 ‘산길은 꿈길’〉

글을 맺으며

동요 100곡 정도를 발췌하여 나무와 숲 그리고 자연에 대한 동요의 세계를 3회에 걸쳐 살펴보았다. 창작동요 70여 년 역사속에서 동요는 무엇보다도 자연을 소재로 많이 다루었다. 생명의 소리요, 새하얀 음성인 동요를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으나 이 글이 동요와 숲을 한데 묶은 최초의 시도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동요는 자연이고, 자연이 동요라는 등식을 새겨서 동요 보급에 매스컴이 여전히 앞장서고 자연이야말로 동심을 보전하는 장소임을 깊이 깨닫고 자연의 모체인 숲사랑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